

응급처치 가이드(3) : 출 혈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출혈이다. 따라서 상처에 대한 처치와 동시에 지혈을 해야 한다. 외출혈은 상처크기와 옷의 혈흔으로 어느 정도 출혈했는지 추정할 수 있으나, 내출혈의 경우는 국소가 부어오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테니스공 정도의 부기라면 약 0.25 l, 어른의 주먹정도라면 약 0.5 l이다. 골절로 부기가 심할 때에는 그만큼의 내출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출혈, 흉강내나 복강내 출혈시에는 환부를 보고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몸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체중의 약 8%, 체중이 50kg인 사람이라면 혈액량은 약 4 l가 된다. 출혈시 총량의 $\frac{1}{3}$ 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frac{1}{2}$ 을 잃으면 출혈만으로 거의 죽게 된다. 같은 출혈량이라도 출혈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위험은 커진다.

응급처치방법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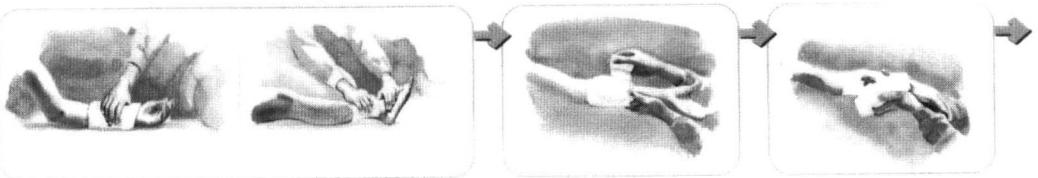
- ① 흙이나 더러운 것들이 상처에 묻어 있을 때는 깨끗한 물(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씻어 준다.
- ② 상처를 깨끗하지 않은 손이나 헝겊 등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엉켜 뭉친 핏덩어리를 떼어 내지 말아야 한다.
- ③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대고 드레싱을 한다.

출혈이 심한 경우

- ① 출혈이 심하면 즉시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출혈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한다.
- ② 상처가 크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상자에게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직접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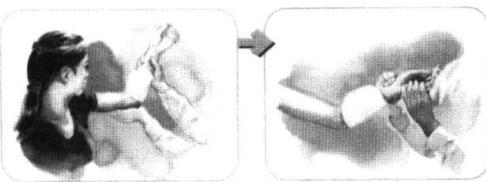
- 상처가 크게 벌어져 있을 때에는 상처 중앙에 거즈로 메우듯이 압박한다.
- 상처에 휴지나 탈지면을 대지 않는다. 작은 부스러기가 상처에 붙어 나중에 치치하기 곤란하게 된다.
- 묶은 매듭이 상처면 위에 오지 않도록 한다.
-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날 때 상처주위를 얼음주머니로 차게 해주면 출혈이 적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직접압박으로 지혈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혈점(동맥)을 압박한다.



1) 깨끗한 거즈를 대고 세게 누른다.
상처 위에 깨끗한 거즈나 천을 직접 대고 위에서 손으로 세게 누른다.
거즈는 상처를 덮기에 충분히 커야 한다.

2) 탄력붕대로 감는다.
거즈로 압박하면 대개 지혈된다.
거즈를 맨 후 탄력붕대로 감아준다.

3) 스며나오는 경우에는 더 감아준다.
피가 많이 스며 나오면 거즈와 탄력붕대로 더 감아준다.



4) 상처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상처입은 팔이나 발은 심장 보다 높게 올린다.

5) 상처 약간 앞의 맥을 조사한다.
붕대를 감고 난 후 상처 약간 앞의 맥을 조사해 본다. 만약 맥이 느껴지지 않으면 붕대를 느슨하게 해 줘 맥이 느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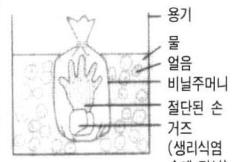
절단된 신체부분의 관리

*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씻은 후에 젖은 멀균 거즈로 싸서 물이 새지 않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다.

* 이를 다시 다른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주위에 물을 채운 후 얼음을 몇 조각 넣는다.

〈주의점〉

- 얼음이 절단 퍼짐물에 닿기 않도록 유의한다.
- 드라이아이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 절단부위를 직접 물 속에 넣지 않는다.



간접 압박(동맥지압법)

- 동맥지압법은 상처를 압박하는 것으로 불충분할 때나 갑자기 출혈이 생겨 거즈를 대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활용한다.
- 동맥지압법은 평상시 확실히 익혀두지 않으면 응급시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출혈의 종류

- 동맥성 출혈 : 선홍색 피가 분출하듯이 나온다. 출혈량도 많아 급히 지혈해야 한다.
- 정맥성 출혈 : 암적색 피가 샘솟듯이 나온다. 비교적 쉽게 지혈할 수 있다.
- 모세혈관성 출혈 : 스며나오듯이 출혈한다. 압박으로 간단히 지혈된다. 그냥 두어도 저절로 지혈되기도 한다.

상처가 있는 곳보다도 심장 가까운 쪽의 지혈점을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으로 세게 누른다.
이때 지혈점의 핵심을 찾아 누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